

보도설명자료

(’22. 10. 19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정부는 EU 전자디스플레이 에너지효율 규제가 최초 발표된
’16년부터 지속 대응함

(10.19일자 매일경제 「전기 많이 먹는다고...한국산 8K TV 유럽서
판매중단 위기」 보도에 대한 설명)

1. 기사내용

- ☐ EU가 당초 4K TV까지만 적용되었던 에너지 소비 효율 기준을
최근 전면적으로 확대해 내년부터 8K와 마이크로LED 제품에도
적용하기로 결정
- ☐ 삼성·LG전자가 내년 3월 1일부터 강화된 EU의 TV 에너지 효율
기준을 맞추기 어렵게 되어 이러한 일방적 규제 강화에 항의했지만,
EU 측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

- ☐ EU는 ’16.12월 전자디스플레이 에너지 소비 효율 기준을 3단계*에
걸쳐 강화하겠다는 동 규제를 최초 발표하였음

* 최초 발표 규제안 기준 : 1단계(’18.7.~) → 2단계(’20.1.~) → 3단계(’21.1.~)

- 정부는 동 규제가 발표된 ’16년부터 업계와 공동으로 적극 대응
하여 3단계에 걸친 규제 시행일을 연기하거나 폐지하였고,
- 특히 UHD-4K 초과(8K/MicroLED 제품 대상)에 대해서는 1단계,
3단계의 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했고, 2단계 규제에
대해서도 시행일을 3년 연기(’20.1.→’23.3월)하는 등의 대응 성과를 얻음

< EU 전자디스플레이 에너지효율 규제 대응 성과 >

단계 / 시행일	HD* 이하	HD* 초과 UHD-4K** 이하	UHD-4K** 초과 및 MicroLED
1단계 '18.7.1.→'21.3.1. 연기	0.90	1.10	1.10
2단계 '20.1.1.→'23.3.1. 연기	0.75	0.90	0.90
3단계 '21.1.1.→'25.4.1. 삭제	0.60	0.75	0.75

* HD : 2,138,400 화소

** UHD-4K : 8,294,400 화소

□ 유일하게 적용 예정인 2단계 규제 관련해 통상교섭본부장 서한 발송, WTO TBT 위원회(공식서한, 특정무역현안), 양자회의, 주 EU대사관 등을 통해 업계의 우려와 규정 재검토 입장을 다각도로 전달 중이며, 양 측 모두가 수용 가능한 방안을 협의 중

○ 추후 중요한 협의 사항이 도출될 경우, 구체적 내용 발표 예정

※ 문의 : 기술규제정책과 전민영 과장(043-870-5520) / 서준호 사무관(5522)